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석사학위논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 전공
신예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태 진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 전공

신 예 진

신예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조 병 희 (인)

부 위 원 장 유 승 현 (인)

위 원 이 태 진 (인)

국문초록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신 예 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겪는 각종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들의 우울 등 정신보건 분야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서 대처 자원의 역할을 논하고 보건정책학적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다문화 청소년 총 6,07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차별을 경험한 568명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주된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3단계를 살펴보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차별 경험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5개 차별 대상자(친구, 선생님·이웃·친척·모르는 사람)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르는 사람에게서 차별받은 모든 경우에서 차별을 적게 받은 응답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은 응답자의 경우 우울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의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낮아지면서 이로서 우울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간 이주결혼여성 혹은 이민자들 위주로 연구되었던 정신보건 관련 문제를 다문화 청소년들까지 확장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탐색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국 규모 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시킨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고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고,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알렸으며, 셋째 학교 내 차별 관련 상담체계 마련 및 교사 역량 강화에 관한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넷째, 다문화 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조기발견,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의 통합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통합 체계 마련 및 기관별 역할·과제를 구체화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등의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양방향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린 점 등이 있다.

주요어 : 다문화 청소년, 차별,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매개효과, 스트레스 과정 모델, 다문화 사회

학 번 : 2013-21855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II. 이론적 고찰

1. 한국의 다문화 사회 이행	3
2.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5
3.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	6
4. 스트레스 과정 모형	8
1) 스트레스원 : 차별	9
2) 매개원인 : 자아존중감	11
3) 매개원인 : 자아정체성	13
4) 스트레스 결과 : 우울	14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16
2. 연구가설	17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7
4. 분석 변수의 정의	18
1) 독립변수	18
2) 종속변수	18
3) 매개변수	18
4) 통제변수	19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2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2) 사회적 차별 경험의 특성	22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교차분석	24
3.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27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28
1)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28
2)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30
V. 결론	32
1 연구결과 요약	32
2 논의	34
1) 차별과 우울의 관계	34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6
2)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37
3 연구의 함의	38
1) 이론적 함의	38
2) 정책적 함의	39
4 연구의 제한점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5

표 목 차

<표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분	1
<표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변화	6
<표 3-1> 변수 및 측정 방법	19
<표 3-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1
<표 3-3> 응답자의 차별 경험	22
<표 3-4> 차별 경험자의 차별 대상	23
<표 3-5>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23
<표 3-6>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24
<표 3-7> 차별경험과 자아정체성 관계	25
<표 3-8>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	25
<표 3-9>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긍정적 자기평가)의 관계 1	26
<표 3-10>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신감)의 관계 2	26
<표 3-11>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기 만족감)의 관계 3	27
<표 3-12>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27
<표 3-13>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와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29
<표 3-14>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29
<표 3-15>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30
<표 3-16>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31

그 립 목 차

<표 3-1> 연구 모형	16
---------------------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통념을 지니고 있던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기존의 통념을 깨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수는 7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5%를 차지하며(2013년),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초·중·고 학생은 지난 9년 사이 9배나 증가하여 10만 명 수준을 기록하였다.(교육부, 2016) 청소년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역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 시각들로 인해 현실로 인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9년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신설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설 등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 방향은 다문화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언어 지원과 같은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을 1차적 목표로 추진해온 탓에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구별된 이방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초기의 연구결과들과 시혜적 시각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은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소외와 편견, 차별들을 양산하고 있다.(김석준, 2015)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별에 대한 경험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데,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거나(김혜미 외 2011)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순규 2011).

그 동안 진행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임소연 외, 2014; 이소희 외, 2013)과 정신건강의 문제 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박형수 외, 2013; 김현식 외 2014)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뤘는데 있어 의미가 있지만 자살의 전 단계이자 중요한 정신 건강의 지표중 하나인 우울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울의 요인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승환, 2016) 이와 달리 국외의 연구들은 다인종사회의 특성에 맞게 인종적 소수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심각성(Jasinskaja-Lahti & Liebkind, 2001; Kim, Wang, Deng, Alvarez & Li, 2011)을 조명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실정에 맞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고 있는 차별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규명하고, 통합적 인식을 강조하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 되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가정의 청소년과 동등하게 통합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직면한 차별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처자원을 강화하여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겪었던 차별경험이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문화가족 정체성과 같은 대처 자원의 역할을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Pearlin & Lieberman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활용하여 내적 대처 자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에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확인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1차적 요인인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로 부터 우울에 이르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우울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신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이 될 청소년의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 이론적, 경험적 공헌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행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 문화주의를 유지해 왔다. 영토적 귀속성, 순혈주의, 단일 언어주의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구성된 한국인은 통합된 국민 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사회 결속력 확대, 빠른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김현미 2013a).

1990년대 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자(유명기 1997; 함한희 1997; 이혜경 2014). 정부는 2006년 4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4월 26일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고 ‘다문화가족센터’가 증설되었으며 이주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으며, 2009년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신설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2년 206개로 확대되어왔다. 또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여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강선혜 2013; 이혜경 2014: 137-38). 이에 따라 오늘날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초기부터 top-down 형태를 보였으며,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식의 전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언어 및 문화 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 정책의 효과는 예산의 투입 대비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인들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수용성 및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차별받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 귀화 여성이 ‘에이즈를 옮길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동남아 이주 노동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점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거부·회피정서’ 등 주요 조사항목을 국제지표 항목과 비교해 본 결과,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 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양상을 다룬 다양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과제로 종족적,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를 꼽고 있다(박병섭, 2006; 김현선, 2006; 장태한, 2001; 김이선 외, 2007).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문제를 고민해볼 기회와 경험이 별로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주민의 증가와, 이들의 존재를 계기로 변화하는 사회 질서 등 다문화사회 관련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중심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배타적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차별 배제모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미나, 2009; 전형권·이승희, 2011; 김정규, 2013).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이들의 차별적 언사나 행동이 이주민 자녀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상처와 소외감을 준다는데 있다. 경기도 교육청·경기가족여성개발원(2007)이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낯설게 느끼거나(60%), 함께 있으면 어색할 것 같다(53%)고 응답을 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경험하고 있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인종별로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나타냈는데, 백인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42.5%) 거만하다(50.2%)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흑인의 경우는 지저분하고(37.5%), 무식(32.5%)하며, 불쌍한(45.1%)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임성택(2003)의 연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들에 대하여 뚜렷이 편향된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이나 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하나, 2016)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적 시각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2.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은 생성의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되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다시 한국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된다.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표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분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됨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거나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 ● 대부분 중국인 및 조선족으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가정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학교 입학이 가능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5080만 1000명)중 청소년 인구는 937만 8000명(18.5%)으로 2010년(1046만 5000명)에 비해 10.4%나 감소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은 1978년 36.9%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통계청은 청소년 인구가 2060년에는 501만 1000명으로 줄어 총인구 중 비중이 11.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9만9000명으로 전년도 8만3000명에 비해 19% 증가했다(교육부,

2016).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1.7%로 높아졌으며 지난 9년 사이 9배나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2012년 0.53%에서 2030년 1.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이 다문화 인구가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2년 146,071명에서 2030년 591,237명으로 304.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안전행정부¹⁾, 2012; 이삼식 외, 2009).

<표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다문화 청소년 (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다문화 청소년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출처 :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향후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일 민족으로 우리 사회에 이들은 다양성을 불어넣을 사회 주요 인적 자원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전체 사회의 인식과 학교 및 생활환경이 유익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그 간 이민자,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였으며, 이들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2세대, 3세대를 거치며 우리 국민으로 완전히 정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다문화 가정

1)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외국인 주민 자녀'로 칭하고 이들의 전수를 조사하며,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조사 중임

자녀로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다. 다문화 청소년은 단지 다문화 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청소년기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언어발달 지연,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선남이2013). 본인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쌍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은 위축감, 소외감을 경험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청소년 차별 경험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형태는 성폭력, 편견, 폭언, 욕설, 폭행, 성매매 권유, 관공서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등 다양했다. 또한 차별을 경험한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이 가운데 42%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차별경험은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고용차별, 이성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 등으로 나타났다(김석준, 2015).

Shackford(1984)는 다문화가정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그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과 더불어 일반 아동과 다른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경험은 자아 존중감, 학교적응, 행동적응의 정도에 영향을 주며 우울, 위축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신지혜(2008)의 연구에서는 국제이주여성 자로 인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차별경험을 지적하고 있다. 박금령 등(2016)의 연구에서도 이중 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 경험을 가진 경우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다인종 사회에서도 라틴, 아시아, 흑인 등 소수인종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 & Azrael, 2009; Juang & Alvarez, 2010; 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10).

따라서 이들의 정신 보건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적응(김기덕·박민서, 2009; 박순희 외, 2008; 은선경, 2010; Kirmayer, 2012; Berry, 1997),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의 관계(박옥임 외, 2010; 허균, 2011; 이광성, 2012)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룬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임소연·박민희, 2014; 이소희·이선혜, 2013)가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지만(박형수 외, 2013; 김현식·김두섭, 2014; 박병금, 2007),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초점을 두고 그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오승환, 2016).

4. 스트레스 과정 모형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속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인간의 신체에도 작용하게 되어 결국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형태로 발현된다(Krieger, 1999)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에 의한 영향까지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Pearlin 등이 제시한 스트레스 과정 모형(stress process model)을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과정 모형은 Pearlin 등(198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스트레스를 단일 현상이 아닌,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서 진행되어 개인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크게 ‘스트레스 원인(原)(Stressor, Source of stress)’, ‘매개요인(Mediator, Mediating resource)’, ‘스트레스 결과(Outcome, Manifestation of stress)’라는 3가지 핵심요소들의 상호과정으로 이루어진다(Pearlin et al., 1981).

첫째, 스트레스 원(原)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녕 상태(well-being)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 때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로 나뉘지는데 1차 스트레스원은 직접적 스트레스이며, 2차 스트레스는 이로 인한 역할 갈등과 내적 긴장 등이다. 둘째, 매개요인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으로서, 스트레스 원(原)과 결과 사이에서 이러한 과정을 매개한다. 이러한 대처 자원은 외적자원과 내적자원으로 구분되며, 스트레스 요인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대처자원의 사용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대처요인에 대한 탐색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결과는 스트레스 원(原)이 초래하는 결과로서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양하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Pearlin, 1989). 마지막으로 상황, 배경 요인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의 요인으로써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통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1차 스트레스 요인과 2차 스트레스 요인인 역할갈등, 긴장, 그로 인한 결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arlin 외(1990, 1997)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1차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차별 경험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따로 2차 스트레스를 상정하지 않고 1차 스트레스와 2차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역할, 심리 내적 긴장을 결합하여 단순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객관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Lee, Kim & Kim, 2006). 매개요인으로는 청소년의 내적 대처자원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요인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설정하였으며,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요인으로 통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원 : 차별

‘무언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구분하고 다른 것들과 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별은 집단 혹은 개인이 그의 소속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unfair treatment)를 말한다(Krieger, 2014). 윤인진(200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인종·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1) 구타, 폭력을 경험, (2) 욕설을 듣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 (3) 이유 없이 무례한 행동을 당함, (4) 불공정한 대우를 받음, (5) 협박을 당함, (6)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음, (7)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 내에서도 각자가 지닌 특성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경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et al. 1994; Crocker & Quinn 2001; 김혜숙·박수미 2006; 안미영·김혜숙 2003; 안미영 외2004). 이로 미뤄볼 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또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의 경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김석준, 2015).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차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차별은 언어, 생활방식, 규범 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문화 출신 구성원의 한국문화 적응 정도가 차별경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거주기간 등을 통해 한국어 구사능력이 유창해고 문화 적응 수준이 높으면 차별경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조인주, 현안나, 2012; Lee & Kim, 2014). 또 다른 관점은 구조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적응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들은 한국인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타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그들의 인종, 종족에 따라서 차별의 정도는 달라진다(Kim, 2014; 하상복, 2012).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의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주로 개인적 관계정보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측면에서 경험된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선남이 2013).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문제가 단순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개인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다보니 언어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학습 이해도가 낮고,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며,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겪는다(이영주, 2007). 또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어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아동의 부모의 문화, 출신국을 비하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하적 표현을 빈번히 듣게 된다(김석준, 2015) 경기도 교육청·경기가족여성개발원(2007)에서 다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약 16%에 달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수자인 일반 학생에 비해 숫자적인 면에서도 열세에 놓이고 이에 따라 학교 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하여 학교에서 차별 및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

해경험은 10.5%(9~11세)로 나타났고(여성가족부, 2013), 148명의 소규모 표집을 통해 분석한 우룡(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19%가 최근 1년간 왕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민식·송시형의 연구(2011)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겼다' '검둥이다' 등의 발언을 들으며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따돌림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에서는(양미진, 이동훈 외, 2012)다음과 같이 차별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 외국인 자녀는 외모의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중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외모 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따돌림 시키기 때문이죠. 냄새가 난다는 등... 계속해서 놀릴거리를 찾아냅니다.

201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학령기 인구수에 비해 실제 재학생의 수가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이들의 취학률이 우리나라 전체 취학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커져 고등학교 3.6%p,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등) 14.8%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편견으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교육 제도 안팎에서 제대로 포용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일례일 것이다. 청소년 차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4-5배 가량 더 많기 때문이다(Page·West, 2011). 차별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차별경험이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홍영수·전선영, 2005; Hudson & Hawton, 2001; Klerman, 1987).

2) 매개원인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주로 아동기에 형성되는 만큼 Erikson(1968)은 아동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이 시기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전 생애에 걸쳐 행복과 성공, 실패와 불행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전 생애 걸쳐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하게 되는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

을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로 인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고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Battle, 1978; 배나래, 2006).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반대로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는데(박영준, 2016)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일반아동 자녀의 자아정체성을 비교한 송선진의 연구(2007)에서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의 자아정체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남윤주(2009)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전문 상담 교사들은 다문화 아이들은 배경이 다르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공통점을 지적한다. “아이들 안에는 어떤 위축이나 억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개방적이지 않고 자신감이 없다”고 진술한다(양미진, 이동훈 외, 2012). 이는 아동의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상미현 외(1999)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조사결과이다.

이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감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있는데 1995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 51편의 메타분석을 통해 우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핀 김동배와 손의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정·표갑수, 2008). 권정혜, 노은여(1997)는 자아존중감을 이론적으로 우울과 가장 관계 깊은 변인으로 보았고, 최미영(2011) 또한 여러 인지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우울증 발병 및 재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과 우울 경향 간에는 전반적으로 상관이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매우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존재하여 이들 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최영희·박영애, 2002)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단독으로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비롯한 기타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례, 이인혜, 2003; Tran, Whight, & Chatters, 1991). 본 연구의 연구 프레임을 제공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우울이 초래된다고 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핀란드의 러시아 출신 이민자

청소년의 차별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적응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Inga, 2001)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차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매개원인 : 자아정체성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자신의 부모의 가치관과 문화, 관습에 대해 혼돈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 어떠한 것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들은 두 나라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최문성, 2009). 이들은 남들과 다른 피부색과 외모로 인해 친구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김경란, 2006; 김순규, 2011; 조영달, 2006),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모의 국적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이선 등, 2007).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나 또래집단에서는 한국 문화에 걸맞는 행동과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되는 반면 가족 내에서는 부모의 문화나 가치규범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나친 기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부모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이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수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며,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최현미, 2008). 또한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 학교교육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최문성, 2009).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 온 아이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옷, 음식 등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이들은 한국에서 주로 자랐고 자신이 특정종교가 있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부모와 이에 대한 갈등을 겪고, 거기에 따른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들이 사회에서 접하는 외모와 언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차별은 자신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니라는 심각한 정체감 혼란을 준다. 더욱이 이러한 다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림으로 변질될 때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양미진, 이동훈 외, 2012).

종합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회의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Clark et al.,1999; Compas et al., 2001전영희, 2012)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성취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어려운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 결과 : 우울

스트레스는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보편적 지표로서 우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Pearlin et al., 1981).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 지속되는 긴장이나 갈등, 불안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종종 적합한 스트레스 결과 증상으로 사용된다(Pearlin et al., 1981).

본 연구 역시 스트레스 영향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우울을 사용한다. 우울을 정의해보면 일반적으로 기분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뜻한다. Beach 등(1990)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으로서 “정신질환에 있어 신체 질환의 감기처럼 매우 흔한(the common cold of mental illness)” 것으로 일컬어진다. 우울 증상을 가볍게 여겨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추후에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양재근, 1982)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하고 저조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식욕 저하, 체중 감소 혹은 증가, 불면증이나 수면과다,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활력 상실,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사고력 및 집중력 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꼽을 수 있다(이근후 외, 1995). 특히 중증도의 우울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며 심하면 자살 혹은 자살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인지·행동발달이 사회문화적 발달과 함께 과거 15-19세의 사춘기 경험이 10-14세로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서구청소년에 비하여 학업, 입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높은 정신건강 위험률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손병덕, 2005)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특히 우울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자살,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재발률이 높아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Sadler, 1991;Harrington et

al, 1990). 그러나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와 달리 우울이 드러나기보다 비행행동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고 이를 방지할 경우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박근영 외, 2013), 대상자들을 조기에 선별해내고 우울의 고위험지표들을 찾아내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로만 구성된 가족과 대비되는 상이한 문화적 요소 및 언어 문제를 겪었고 이것이 이들의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혜미·문혜진, 2013). Whaley 와 Francis(2006)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이중문화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非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응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윤주, 이숙(2009) 연구에서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의 우울은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이 다문화가족 아동에 비해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국인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을 나타냈다는 김경자(2007)의 연구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30%가량이 ‘우울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우리나라 일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정서적 발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전혜정 등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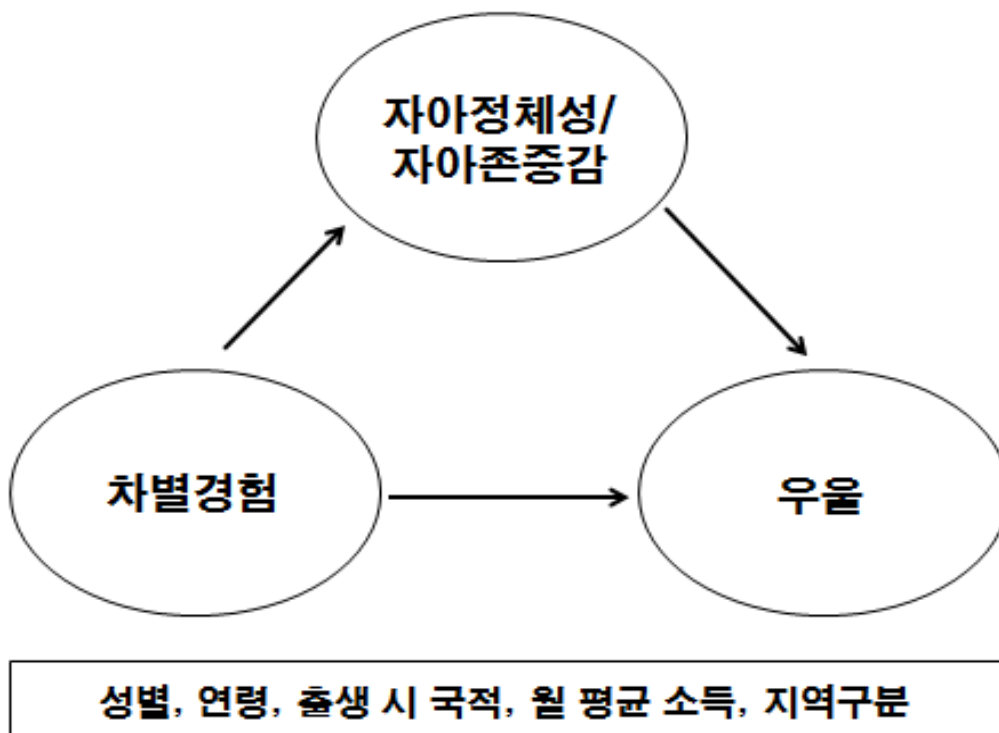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사회 주류집단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양계민, 2016). 특히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적 문화나 관행들은 다문화 현상과 이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차별적 태도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의 인지로 인한 우울의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 정책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가정의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을 스트레스 원(原)'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매개요인'으로, 우울을 '스트레스 결과'로 설정함으로써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그림3-1> 연구 모형



2.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과 우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연구가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5)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족 표본조사를 통해 27,120 가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7,120 가구 중 청소년 자녀(9~24세)가 있는 6,079 가구에 대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녀의 조사항목은 크게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조사 분야는 가정생활, 성장배경 및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사회적 차별경험, 경제활동으로 구성 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 차별 경험

본연구의 독립변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의 차별경험 척도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질문 중 ‘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했으며, 독립변수의 항목 값은 명목척도(0=없다, 1=있다)로 구성된다. 차별의 대상은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이다.

2) 종속변수 : 우울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우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5) 자료의 정서 및 사회생활 조사문항 가운데 ‘지난 1년 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1점에서 4점까지(1=그런 적 없다, 2=가끔 느꼈다, 3=자주 느꼈다, 4=매우 자주 느꼈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을 나타낸다.

3) 매개변수

가. 자아 정체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매우 싫다. 2=싫다, 3=보통이다. 4=좋다, 5=매우 좋다)로 기존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부모가 외국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사람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가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자아 존중감

또 다른 매개변수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의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기존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세 개의 문항을 단순 합산, 평균을 계산한 산술평균 사용하였으며,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관련 선행 연구에 근거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성별, 연령, 출생 시 국적 등 인구학적 변수와 월평균 소득, 거주 지역 등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3-1>에 제시하였다.

<표3-1> 변수 및 측정 방법

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독립변수	차별 경험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 부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차별 대상 :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	없다(0) 있다(1)
종속변수	우울	지난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그런 적 없다(1) 가끔 느꼈다(2) 자주 느꼈다(3) 매우 자주 느꼈다(4)
매개변수	자아 정체성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싫다(1) 싫다(2) 보통이다(3) 좋다(4) 매우 좋다(5)
	자아 존중감	1.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별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3)
3.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통제변수	성별	남자 / 여자	
	연령	만 연령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출생시 국적	한국/ 중국/ 일본/ 기타	
	거주 지역	동부/ 읍면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단위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700/ 700~)	

5.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실태 조사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가공절차를 거쳐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차별 경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차별경험,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차별 대상에 따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검증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입증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079명으로서 이들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2,974명(48.9%), 남자가 3,105명(51.1%)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9~11세가 가장 많고(2,252명, 37.0%), 그 다음은 12~14세(1,707명, 28.1%), 15~17세(1,226명, 20.2%), 18세 이상(894, 14.7%) 순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국적을 보면 한국이 4,536명(7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본(800명, 13.2%), 중국(386명, 6.3%), 기타(357명, 5.9%)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보면 읍면부는 2,329명(28.3%), 동부는 3,750명(61.7%)으로서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이 1,786명(29.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400만원(1,389명, 22.8%), 100~200만원(1,350명, 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3-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6,079	100.0
성별	여자	2,974	48.9
	남자	3,105	51.1
출생 시 국적	한국	4,536	74.6
	중국	386	6.3
	일본	800	13.2
	기타	357	5.9
연령	9-11세	2,252	37.0
	12-14세	1,707	28.1
	15-17세	1,226	20.2
	18세 이상	894	14.7
거주 지역	읍면부	2,329	38.3
	동부	3,750	61.7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42	5.6
	100-200만원 미만	1,350	22.2
	200-300만원 미만	1,786	29.4
	300-400만원 미만	1,389	22.8
	400-500만원 미만	655	10.8
	500-600만원 미만	326	5.4
	600-700만원 미만	117	1.9
	700만원 이상	114	1.9

2) 사회적 차별 경험의 특성

전체 6,079명 중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5,511명(90.7%)이고, 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568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표3-3)

<표3-3> 응답자의 차별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6079	100.0
차별경험	없다	5511	90.7
	있다	568	9.3

<표3-4>는 차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와 차별의 정도(심한 차별, 약한 차별)를 조사한 결과이다.

차별의 정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2,109 응답자 중 심한 차별을 느낀 경우는 627(29.7%)명이었고, 약한 차별을 받은 경우는 1,482명(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의 차별자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친구, 모르는 사람, 이웃, 선생님,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경우, 심한 차별을 받은 그룹(346명, 80.8%)이 약한 차별을 받은 그룹(82명, 28.3%)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차별의 경우 다른 대상자로부터 받는 차별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우가 두 번째로 27.3%(117명)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타문화 혹은 인종에 대한 배타성에 의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3-4> 차별 경험자의 차별 대상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28	100.0	421	100.0	404	100.0	428	100.0	428	100.0
심한 차별	346	80.8	61	14.5	29	7.2	74	17.3	117	27.3
약한 차별	82	19.2	360	85.5	375	92.8	354	82.7	311	72.7

※ 중복응답 포함

차별을 받은 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255명, 44.9%).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197명, 34.7%)는 응답이 많았고, 별 다른 생각없이 그냥 넘어갔다(150명, 26.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90명, 15.9%), 친구들과 상의했다(60명, 10.5%),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16명, 2.8%) 등이 있었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거나,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등의 소극적 혹은 무대처 방안이 전체의 70%를 이루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들이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선생님 등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차별의 상황을 인지하고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차별의 문제를 그냥 회피해 버리거나, 수용해 버리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표 3-5>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781	137
상대방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90	15.9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197	34.7
친구들과 상의하였다	60	10.5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	16	2.8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255	44.9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150	26.4
기타	13	2.3

※ 중복응답 포함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교차 분석

기초 분석으로 차별 경험,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을 등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3-6>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의 평균값은 0.09, 표준편차는 0.2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의 측정값은 평균 1.21, 표준 편차 0.48로 일반적으로 우울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 정체성은 평균값이 3.44, 표준편차가 0.90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부모가 외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의 평균값이 3.82, 표준편차는 0.80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요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차별 경험	0.00	1.00	0.09	0.29
우울	1.00	4.00	1.21	0.48
자아 정체성	1.00	5.00	3.44	0.90
자아 존중감	1.00	5.00	3.82	0.80

차별 경험 유무에 따른 우울,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하위항목 포함)의 관계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차별 경험과 자아 정체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 분석에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향이 높았다.

차별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보통(2,883명, 52.3%)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좋다(1,343명, 24.4%), 매우 좋다(876명, 15.9%)라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의 40% 수준을 차지하였다. 반면,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보통(280명, 49.3%)이라고 한 의견은 절반 수준으로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와 비슷했지만, 매우 싫다(34명, 6.0%) 싫다(74명, 13%) 등의 부정적 응답이 전체의 20% 수준으로 차별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차별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 차별 경험과 자아 정체성의 관계

구 분			자아 존중감					전체
			매우 싫다	싫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차별 경험	없다	빈도	93	316	2883	1343	876	5511
		%	1.7%	5.7%	52.3%	24.4%	15.9%	100.0%
	있다	빈도	34	74	280	115	65	568
		%	6.0%	13.0%	49.3%	20.2%	11.4%	100.0%
전체		빈도	127	390	3163	1458	941	6079
		%	2.1%	6.4%	52.0%	24.0%	15.5%	100.0%

차별 경험과 우울 경험의 관계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우울을 느꼈다(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40%에 달했지만, 차별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우울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 수준으로 차별 경험에 따라 우울 경험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표 3-8>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

			우울(지난 1년간 경험)				전체
			그런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차별 경험	없다	빈도	4,669	735	82	25	5,511
		%	84.7%	13.3%	1.5%	0.5%	100.0%
	있다	빈도	341	185	32	10	568
		%	60.0%	32.6%	5.6%	1.8%	100.0%
전체		빈도	5,010	920	114	35	6,079
		%	82.4%	15.1%	1.9%	.6%	100.0%

자아 존중감은 3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 자기평가(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신감(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자기만족감(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 자기평가(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비율은 차별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은 차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긍정적 자기평가)의 관계 1

구 분			긍정적 자기평가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차별 경험	없다	빈도(명)	1,304	2,020	1,795	346	46	5,511
		비율(%)	23.7	36.7	32.6	6.3	0.8	100.0
	있다	빈도	121	171	183	75	18	568
		비율	21.3	30.1	32.2	13.2	3.2	100.0
전체		빈도	1,425	2,191	1,978	421	64	6,079
		비율	23.4	36.0	32.5	6.9	1.1	100.0

자신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항목에서도 부정적으로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한 비율은 차별경험이 없는 그룹(5.1%)에 비해 차별경험이 있는 그룹(14.1%)이 높게 나타나 차별경험이 자신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0>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신감)의 관계 2

구 분			자신감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차별 경험	없다	빈도(명)	1,337	2,152	1,741	252	29	5,511
		비율(%)	24.3	39.0	31.6	4.6	0.5	100.0
	있다	빈도	129	176	183	63	17	568
		비율	22.7	31.0	32.2	11.1	3.0	100.0
전체		빈도	1,466	2,328	1,924	315	46	6,079
		비율	24.1	38.3	31.6	5.2	0.8	100.0

자기 만족감에 대해 묻는 질문('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서도 차별경험이 있는 그룹의 부정적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12.7%)이 차별경험이 없는 그룹(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별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는 남들과 다른 외모 등의 이유로 인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 차별 경험과 자아 존중감(자기 만족감)의 관계 3

구 분			자기 만족감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전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차별 경험	없다	빈도(명)	1,820	2,038	1,392	223	38	5,511
		비율(%)	33.0	37.0	25.3	4.0	0.7	100.0
	있다	빈도	139	165	192	60	12	568
		비율	24.5	29.0	33.8	10.6	2.1	100.0
전체		빈도	1,959	2,203	1,584	283	50	6,079
		비율	32.2	36.2	26.1	4.7	0.8	100.0

3.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차별 대상(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이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49$, $p<0.05$). 즉,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 받은 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생김새, 언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심리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친구로부터 차별 받은 경우가 더욱 많았지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받은 경우 우울에 더욱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낮으며, 청소년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소수 집단에 차별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표 3-12> 차별 대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차별 대상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Value
	B	표준 오차	β		
상수	.802	.204		3.933	.000
친구	.075	.090	.043	.840	.402
선생님	.156	.107	.076	1.463	.144
친척	-.108	.155	-.040	-.698	.486
이웃	.205	.110	.106	1.869	.062
모르는 사람*	.236	.085	.149	2.783	.006
R^2				.046	
Adjusted R^2				.033	

* $p < .05$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이 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회귀분석에 따르면 어떤 변수가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매개변수를 통제 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가 감소해야 한다.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며, 회귀계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라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1)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먼저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이 매개변수 자아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94, p < 0.01$). 즉, 차별에 대한 경험이 자아 정체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성별($\beta = -.053, p < .001$), 연령($\beta = -.076, p < .001$), 거주 지역($\beta = -.058, p < .05$), 소득($\beta = .049, p < .001$), 출생 국적(일본,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3, p < .001$) 즉 차별을 경험할 경우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제 변수 가운데 연령($\beta = .095, p < .001$), 거주 지역($\beta = .032, p < .05$)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beta = .177, p < .001$)과 자아 정체성($\beta = -.73, p < .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차별 경험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83 \rightarrow .177$)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3>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와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 변수 →종속변수)		
		B	β	B	β	B	β	
	(상수)	3.692		1.084		1.229		
통제변수	성별	-.095	-.053***	-.030	-.031*	-.034	-.035	
	연령	-.019	-.076***	.012	.095***	.012	.089***	
	출생 국적	중국	.051	.014	-.023	-.012	-.021	-.011
		일본	.194	.073***	-.022	-.015	-.014	-.010
		기타	.210	.055***	.019	.009	.027	.013
	지역동부	-.107	-.058***	.032	.032*	.027	.027*	
	소득	.030	.049***	-.022	-.067***	-.021	-.063***	
독립변수	차별 경험	-.290	-.094***	.306	.183***	.294	.177***	
매개변수	자아 정체성	-	-	-	-	-0.039	-0.73***	
R ²		.029		.049		.054		
Adjusted R ²		.027		.048		.053		
ΔR ²		-		-		.05		

* p< .05, ** p< .01, *** p< .001

정확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4.458로 산출되었으며, p<.001 수준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은 차별경험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3-14> 자아 정체성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변수 경로	Z 값	P-Value
차별경험 → 자아정체성 → 우울	4.458	.000

* p< .05, ** p< .01, *** p< .001

2)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 차별경험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5$ $p < .001$). 즉, 차별을 경험하면 자아 존중감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매개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연령($\beta = -.122$ $p < .001$), 거주 지역($\beta = .015$ $p < .05$), 소득($\beta = .119$ $p < .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읍·면인 경우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모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경험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83$, $p < .001$) 즉 차별을 경험할 경우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제 변수 가운데 연령($\beta = .095$ $p < .001$), 거주 지역($\beta = .032$ $p < .05$)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차별 경험($\beta = .164$, $p < .001$)과 자아 존중감($\beta = -.202$, $p < .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차별경험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83 \rightarrow .164$)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5>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 변수 →종속변수)		
		B	β	B	β	B	β	
	(상수)	3.968		1.084		1.567		
통제변수	성별	-.019	-.012	-.030	-.031	-.032	-.033	
	연령	-.027	-.122***	.012	.095***	.009	.070***	
	출생 국적	중국	.055	.017	-.023	-.012	-.017	-.008
		일본	.005	.002	-.022	-.015	-.021	-.015
기타		.137	.040	.019	.009	.036	.017	

구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 변수 →종속변수)	
		B	β	B	β	B	β
	지역동부	.025	.015*	.032	.032*	.035	.035
	소득	.065	.119***	-.022	-.067	-.0	-.043*
독립변수	차별 경험	-.263	-.095***	.306	.183***	.274	.164***
매개변수	자아 존중감	-	-	-	-	-.122	-.202***
R ²		.037		.049		.088	
Adjusted R ²		.036		.048		.087	
ΔR^2		-		-		0.39	

* p< .05, ** p< .01, *** p< .001

보다 정확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6.74로, p<.001 수준에서 산출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3-16>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Sobel Test

변수 경로	Z 값	P-Value
차별경험→ 자아 존중감 → 우울	6.74	.000

* p< .05, ** p< .01, *** p< .001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차별로 인한 우울에도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를 스트레스 과정 모형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로 인한 우울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고, 차별로 인한 우울의 매개 원인을 확인하여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으로 지속되면서 정서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좌절감, 소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킨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감소는 결국 우울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차별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이며,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통해 krieger 등이 주장한 차별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경우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 연구가설 1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과 우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가설 2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2015년 전국다

문화가족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과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전체 다문화 청소년 총 6,079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 중 차별을 경험한 568명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차별경험(친구, 선생,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별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별 경험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우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5개 차별 대상자(친구, 선생님·이웃·친척·모르는 사람)로 분류하여 대상자별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르는 사람에게서 차별받은 모든 경우에서 차별을 적게 받은 응답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은 응답자의 경우 우울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구가설 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차별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 결과, 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의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로서 우울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아존중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사회적 차별과 우울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 살펴본 결과 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는 것 자체로도 우울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차별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아지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면서 결국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차별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우울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 기존의 이론(krieger,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2.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차별과 우울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회귀 분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별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가 근거를 두고 있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의하면, 우울은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만성적인 긴장과 갈등, 실패감 등으로 인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Pearlin et al., 1981).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아동의 부모의 문화, 출신국을 비하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하적 표현을 빈번히 듣게 되는 등(김석준, 2015)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차별 상황에 노출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지내게 됨으로서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해 결국 자아존중감(박영준, 2016) 및 자아정체성은 낮아진다(송선진, 2007). 이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결과로서 다문화 청소년은 우울을 느끼게 된다(권정혜·노은여 1997; 최미영 2011; 최영희·박영애, 2002).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은 이러한 친구, 선생님, 이웃 등 다양한 차별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차별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이 약화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정신 건강 영향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을 대표성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살펴보았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자,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우울을 설정한 것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조작적으로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불공평한 대우 및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내적 긴장을 초래하며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건강의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이며, (Krieger and Sidney, 1996; Karlsen and Nazroo, 2002)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인종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Almeida, Johnson, Corliss, Molnar & Azrael, 2009; Juang & Alvarez, 2010; 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10).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차별로 인한 우울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점이 있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친구 등으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양계민 외, 2014; 양심영 등) 본 연구에서는 모르는 사람 즉,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차별이 청소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가족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Shackford(1984)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2006년 이후 시작된 한국의 다문화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여전히 낮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하성, 2007).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로 인한 우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하고, 우울 증상을 가볍게 여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재곤, 1982) 정신 보건 분야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차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별 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경우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즉, 이들은 차별을 경험하고도 이를 회피하거나 차별을 아예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krieger는 차별 경험, 차별 인지, 차별 보고)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그것을 모두 차별로서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 그것을 차별로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aren·Donald의 연구에서 소수 인종들은 차별을 인지하였음에도 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차별의 경험을 자신의 실패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심리 정신적 안정을 얻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 매우 위험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우울증상의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김승섭(2016)의 연구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우울증상 유병율이 높은 집

단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였다. 즉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7배,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들이나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답한 이들에 비해 2배 가량 우울증 발생이 흔했다. 즉차별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수록 우울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회피, 수용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억압적 문제 해결 전략은 차별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Wei et al. 2008).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을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표현할 있도록 하는 차별의 인식과 표현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차별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경험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에 대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되어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개념이 붕괴되고, 이로써 우울이 초래된다고 설명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Pearlin, 1989)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차별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반대로 차별을 경험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는 박영준(2016)의 연구와 아동의 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상미현 외(1999)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시켜주는 조사결과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쳤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상승하였으며 이는 우울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이는 김기정·표갑수(200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이론적으로 우울과 가장 관계 깊은 변인(권정혜, 노은여(1997)이고, 여러 인지요소 중 자아존중감이 우울증 발병 및 재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최미영, 2011)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흡수하여 매개하였다. 즉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중 일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차별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한다는 선행연구(Inga, 2001)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그 이론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차별과 우울에 대한 보건학적 정책 실천을 꾀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정체성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차별은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면 자신감을 잃어 학교 교육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사회적 소외로 인한 정체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최문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자아정체성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이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수자로 취급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며,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최현미, 2008)고 보고한 연구와 방향을 같이 한다.

셋째, 자아정체성은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를 설명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사회·문화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혼란을 겪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어 다양한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한(Clark et al.,1999; Compas et al., 2001; 전영희, 2012)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3.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였다. 스트레스 원(原)으로 차별 경험을, 스트레스 결과로 우울을 설정하였고, 매개요인으로 내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대입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이질적인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하고 이는 비롯되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원으로서 해당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내적 대처자원이 차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배경이론으로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 대처자원을 파악하고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데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그 간 이주결혼여성 혹은 이민자들 등 성인 위주로 연구되었던 정신보건 관련 문제를 청소년들까지 확장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다문화 가족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 청소년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서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문제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을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워내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인 이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의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차별의 현황과 우울의 요인

(要因)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우울에 대응하기 위한 대처자원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그러한 매개 과정을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자아정체성도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파악하고 이들을 우울과 연계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등 대처자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 모두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울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조사하였으며 그러한 대처자원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국 규모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또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신지혜 2008, 박금령 2016)는 대부분 특정 지역 내의 학교 및 다문화 센터 등을 근거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소수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대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및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수립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차별, 분리되고 우리 사회에서 낙인되지 않도록,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의 변화를 강구하는 것이고,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신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지 집단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등 내적 역량 강화를 강화하며 아울러 정신 보건 향상을 위해 관련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들 간의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강령 등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친다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 . 다문화 청소년 교육 확대와 기본 방향 변화

현재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은 중학생이 되는 혹은 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의 부재로 인해, 이중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속하게 다문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선형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은 분리가 아닌 통합을 기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다문화 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다른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원의 내용을 비(非)다문화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다문화 청소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 학생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면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다 보니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는 낙인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특별 학급’의 설치,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다문화 청소년 대상 캠프 등 지원방식은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 청소년을 非다문화 청소년과 구별, 구분하거나 다문화 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게 되므로 가능한 일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비(非)다문화 청소년이 구별없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교육은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보다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거나 복지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언어 지원, 학습지원 등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우수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인적 자본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그 간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정착초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부모(부 또는 모)의 이주로 인해 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러한 교육들은 주로 빠르게 한국 사회 내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에 치중해 있다(안전행정부, 2012; 통계청,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2). 박기관(2009)과 최무현(2009)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사회적응 및 생활 지원 측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점차 다문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응을 강화하는 사업은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의 학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 강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은 개개인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기반으로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위하여 자아정체감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자아성찰 프로그램, 자기주장 훈련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자아탐색, 감정표현, 긍정적 사고, 자기동기화 그리고 중요한 타자와 관계 맺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자아 탐색의 변화를 도모하고, 차별 경험 등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

으로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유능한 개인으로 인식되게 하며,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지게 하며 중요한 타자와 존중, 수용, 관심이 오고가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이상의 사춘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정체감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체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차별 대응 방안 지도 및 교사 역량 강화

차별을 당했을 때 선생님, 부모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지혜(2008)에 따르면 차별경험은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모두 큰 영향을 미치나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한 내적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를 외면해 버리거나 자기의 문제로 수렴하는 방법은 문제를 대면하여 해당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 등을 그만두고 그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치환하는 일종의 억압적 문제 해결 전략이다. 소극적 문제 해결 전략은 낮은 자아존중감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적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Dion et al., 1992).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존감의 향상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상황에 맞는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별의 상황 시 적극적으로 이를 표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 교사의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중단 연구 결과(2011)에서 교사의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작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에 인식이 높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사의 다문화역량

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관련 교육 자료 부족 및 교사 간, 지역 간 상호 정보공유 부재로 다문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 종사자들은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다문화학생을 지도했던 경험을 통해 훌륭한 지도 방법 및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교사들과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처음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담당하게 되는 교사의 경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지도 방안에 대한 교사 연수시간을 확충하여 다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 다문화 청소년 지도 방안,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다문화 청소년 교육 시의 주의 사항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교육하여 실제 다문화 학교상황에서 교사의 행동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학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담당교사를 별도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 전문과정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및 진료 상담 등 학교 내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들의 적절한 롤모델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로서 활동하며, 이들과 쉽게 어려움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다문화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강화

청소년의 정신 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보다는 정신건강 상태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교사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 홍보사업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지지체계를 통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서적 지지체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부모, 형제, 친구, 교사 중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깊은 지지적, 공감적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

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는 가정이므로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에 필수적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정상적 가족 기능의 함양을 목표로 상담을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과 부모의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학생과 부모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보급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정신보건센터나 민간 기관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치료를 받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 뿐 아니라 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동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며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 내 다문화 전문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사회 복지사, 심리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및 지도사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검진 사업 실시, 전담교사에 의한 수시 개별상담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를 다문화 가정이 많은 학급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행정 체계와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전문기관과 병원, 보건소, 지방정부, 중앙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와 정신 보건센터의 연계,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홍보를 실시하며, 다문화 청소년과 그의 부모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다문화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 보건 관련 사업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미충족 수요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변화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도 파악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다.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민자 등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에게 적응하여야 한다. 그들은 한국어를 익혀야 하고, 한국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낯설고 나와는 다른 존재를 용인하고 이해하여야 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 등의 다문화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양방향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 청소년 대상 사업이 중요한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국들의 관련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등이 확대 개최되어야 하며, 일정 수 이상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등에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교육 활동을 확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워크샵도 병행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나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질적 차이는 교란변수로서 통제를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출신국적, 청소년의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한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한 중국, 일본인 출신 학생들보다, 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차별의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 자아정체성 등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9~만24세로 설정하

였으나 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혹은 성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나이대별, 혹은 초등·중등·고등 등 교육정도에 따라 차별의 민감성을 나누어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 진행된 연구인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자 차원에서 설문지 측정 도구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등이 불가능하였다. 차별과 관련된 설문 조사 시에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에 차별 관련 질문을 특정한 하나의 원인으로 설정할 경우 응답자에게 혼돈을 주어 차별 경험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별원인을 질문하기에 앞서 부당한(unfair) 사회경험 일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차별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후, 그 다음 질문으로 차별경험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며 (Kim & Williams, 2012; Williams et al., 1997). 차별 경험을 생활사건(life events)과 외상경험(traumatic experiences)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측정 도구 설문지가 차별경험을 측정하기에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설문지에서는 단순히 우울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질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불안, 무기력, 자신감 상실, 슬픔, 전반적인 안녕상태 등 하부단위 질문(Kessler et al., 2002)을 통해 우울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장기간에 걸쳐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를 추적 조사하지 못하였다. 단면 연구는 종적 연구에 비해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Gee & Walsemann, 2009).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이 우울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개 변수 중에 어떠한 변수가 더욱 크고 강하게 작용하였는지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뿐 아니라 그 간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단면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향후 종적 연구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보다 진전된 연구 설계를 추진하고 차별과 정신 건강의 인과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근거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스트

레스 과정 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원(原)으로 보는 견해(Pearlin et al., 1981)와 스트레스 과정의 매개요인으로 보는 견해(Pearlin & Schooler, 1978)가 양립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대처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차별의 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원으로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차별의 과정에서 사회적지지 등 외적 대처자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외적 대체자원으로 투입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2차 연구이므로, 사회적 차별로 인한 정신 건강의 문제를 우울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우울 뿐 아니라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 등 다양한 정신 보건 관련 문제들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심장병, 근골격계 질환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의료 접근성 등 건강관련 변수들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차별로 인한 건강 문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미숙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4: 1-8.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유경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생활 적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5-89.
- 김유균, et al.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 김은석 and 유성경 (2013).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97-912.
- 김정민, et al. (2015). "다문화 가정과 한국 가정 청소년의 정신 건강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79-287.
- 김종세 (2010).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7: 1-19.
- 김태원 and 김유리 (2011).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수준 분석." 인문연구(62): 323-362.
- 김혜련 (2009). "결혼 이주여성의 모자보건 및 모자영양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0-64.

- 김혜련 (2010).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6-57.
- 김혜련 (2013).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5: 1-8.
- 김혜미, et al.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남영옥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37-47.
- 남윤주 and 이숙 (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노혁, et al(2014).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회다정다감포럼 발표자료
- 민무숙 et al(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155
- 박세은 (2011). 한국 청소년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health and suicidal ideation / 박세은. 서울, 서울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 박진우 and 장재홍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박형수·유진호·박부연(2013).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 8(5), 771-777.
- 손인서 and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양계민, et al.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87.

양계민, et al. (20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87.

양심영·박수경·김미숙.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70-282.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양심영·박수경·김미숙.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70-282.

유인영 and 이정애 (2013). “다문화 가족 환경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5): 699-707.

이선아(2014).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소희·이선혜(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24-131.

이봉숙, et al.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건강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1): 64-75.

이종윤 (2010).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4): 163-185.

이혜경(2014).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15(1): 129-161

임소연·박민희(2014).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비교.”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3), 1641-1651.

정향미, et al. (2015).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체형지각, 건강행위 및 건강상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2(2): 167-175.

하상복 (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33: 525-556.

함한희(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문제논집 □3(1): 99-129.

Kim, H. S., & Kim, H. S. (2013). Depression in Non-Korean Women Residing in South Korea Following Marriage to Korean 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7(3), pp.148-155.

Kim, M. (2013). Citizenship Projec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Intersecting Motherhood with Ethnicity and Clas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20(4), pp.455-481.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 Co.

Ekin, Annette. 2014. "South Korean Views on Race Linked to Economics." *The Wall Street Journal*.

Weber, M. (1968 [2008]). *Open and Closed Relationships*. In D. B. Grusky (Ed.),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3rd Edition ed., pp.128-132). Boulder, CO: Westview Press.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 J Health Serv*, 29(2), pp.295-352.

Krieger, N. (2014). *Discrimination and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4(4), pp.643-710.

Krieger, N., Kosheleva, A., Waterman, P. D., Chen, J. T., & Koenen, K. (2011). *Racial discrimin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self-rated health among US-born and foreign-born Black Americans*. *Am J Public Health*, 101(9), pp.1704-1713.

Williams, D. R., & Mohammed, S. A. (2009).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health: evidence and needed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pp.20–47.

Operario, D., Adler, N. E., & Williams, D. R. (2004). Subjective social status: Reliability and predictive utility for global health. *Psychology & Health*, 19(2), pp.237–246.

Kim, S. S., Williams, D. R.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PLoS One*, 7(1), e30501.

Ruggiero, K. M.,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pp.373–389.

Self-Reporte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Health: Scientific Advances, Ongoing Controversies, and Emerging Issues Ten'e T. Lewis,¹ Courtney Cogburn, and David R. Williams³,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p.531.

Paradies, 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pp.888–901.

Asakura, T., Gee, G. C., Nakayama, K., Niwa, S. (2008). Returning to the “homeland”: work-related ethnic discrimination and the health of Japanese Brazilian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4), pp.743–750.

Moomal, H., Jackson, P. B., Stein, D. J., Herman, A., Myer, L., Seedat, S., et a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disorders: the South African Stress and Health study. *South African Medical Journal*, 99(5 Pt 2), pp.383–389.

Perreira, K. M., Telles, E. E. (2014). The Color Of Health: Skin Color,

Ethnoracial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Health Of Latin Americans. *Social Science & Medicine*, 116, pp.241–250.

Santana, V., Almeida Filho, N., Roberts, R., Cooper, S. P. (2007). Skin colour, perception of racism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 urban Brazil.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2(3), pp.125–131

Sutin, A. R., English, D., Evans, M. K., Zonderman, A. B. (2014).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mplifies the effect of antagonism on cigarette smoking. *Nicotine & Tobacco Research*, 16(6), pp.794–799.

Han, J., Richardson, V. E.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discriminatio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ge discrimination. *Aging & Mental Health*, pp.1–9.

Kim, S.-S., Chung, Y., Subramanian, S. V., Williams, D. R. (2012). Measuring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Under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among Female and Less Educated Workers? *PLoS One*, 7(3), e32872.

Kim, S.-S., Williams, D. R.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Plos One*, 7(1).

Barnes LL, Mendes de Leon CF, Wilson RS, Bienias JL, Bennett DA, Evans DA. 2004. Racial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rimination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blacks and whites. *J. Aging Health* 16:315 - 37

Berkman, L. F., Glymour, M. M., Kawachi, I. (Eds.). (2014). *Social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cLaughlin KA, Hatzenbuehler ML, Keyes KM. 2010. Responses to discrimination and psychiatric disorders among black, Hispanic, female, and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Am. J. Public Health* 100:1477 - 84

Soto JA, Dawson-Andoh NA, BeLue R.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mong African Americans, Afro Caribbeans, and non-Hispanic whites. *J. Anxiety Disord.* 25:258 - 65

Seng JS, Lopez WD, Sperlich M, Hamama L, Reed Meldrum CD. 2012. Marginalized identities, discrimination burden, and mental health: empirical exploration of an interpersonal-level approach to modeling intersectionality. *Soc. Sci. Med.* 75:2437 - 45

Tumaini R. Coker, MD, Perceived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mong Fifth-Grade Students and Its Association With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 May 2009, Vol 99, No. 5

Abstract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Shin Ye Ji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elf-reported discrimination o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based on Stress Process theory,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 identity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multi cultural family adolescents.

Cross-sectional data derived from personal questionnaire with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NSMF) by Ministry of women and family were analyzed. 6,079 adolescents were selected as the study objects and the final 568 were put into the regression model to examine hypotheses. For the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mainly used, and 4 steps of Baron and Kenny(1986) were examined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reported discrimin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This tendency(self-reported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depression.) also was shown in cases if they were discriminated by strangers. And by using baron and kenny's method I confirmed that self-esteem and self-identity display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That means as discrimination increased, self esteem and self identity decreased, and as self esteem and self identity decreased, depression increased.

**keywords : discrimination, depression, self-esteem, self-identit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Student Number : 2013-21855